

교육

후마는 죽었다 VS 근거없는 억측 오는 5일 공개토론회 예정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서울】 「경희대 비민주적 행정연대 후마구조대(후마구조대)」가 지난달 20일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후마니타스 장례식」을 열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과 개편을 비판한데 대해 후마가 반박하고 나섰다.

후마구조대는 장례식 참가자와 함께 캠퍼스를 행진한 뒤 청운관 앞에서 「추도식」을 열고 후마의 이번 개편이 강사법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용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이날 정문부터 청운관을 지나 본관으로 행진하면서 「비용축소 중단하고 구성원과 소통하라」, 「경희대는 강사법을 준수하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폐지 인간다움은 어디에」 등 구호를 외쳤다. 청운관 앞에서는 「삼고 고학(學)의 명복을 빙니다」라는 현수막 앞에서 국화를 헌화하고 주도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은 청운관으로 들어가던 중 헌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후마구조대, 후마가 비용절감 위해 교육의 질 희생시키고 있다 주장

후마구조대는 지난해 12월, 결성 이후 지금까지 후마의 교과과정 개편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우사세가 중핵교과에서 제외되고 신설과목 「세계와 시민」으로 통폐합된 것을 두고 후마 교양교육의 핵심이었던 우사세가 교수자, 학생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졸업이수학점 축소, 대학영어 수강인원 증가, 필수교과 축소 결정의 진짜 이유가 강사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비판하며 온라인 강의 확대, 개설강의 축소 등 학교가 비용절감을 위해 교육의 질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4년 100여 개의 교양과목을 폐지하고 2015년에는 시간강사 67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전적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후마니타스 장례식에 대한 한겨레,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후마 이영준 학장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후마장례식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교내를 행진한 뒤, 청운관 앞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고 국화를 헌화하기도 했다.

억측이 학생들 사이에 훈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후마는 반박하며 억측으로 혼란 조장해선 안된다 비판

후마 측은 먼저 졸업이수학점 축소는 후마와 무관한 일이며 대학영어의 수강인원이 늘어난 것은 빙문을 제외한 필수교과의 수강인원을 25명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정원이 20여 명이었던 대학영어는 정원이 늘어났지만 다른 과목은 25명 기준에 맞춰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우사세 폐지에 대해서도 향후 3년 간 우사세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번 학생을 위해 유지하고 배분이수 과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사세 폐지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 교수를 인사 조치로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쟁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오히려가 있었을 뿐, 비대위 구성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기준 입장을 반복했다.

후마구조대가 근거로 든 2014년 강좌 축소는 교양학부를 후마로 개편하던 당시 학생회 요구에 따라 존치시킨 교양학부 커리큘럼 과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

마 측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교양강의 수는 교양학부 시절이었던 2010년 1,081개인데 비해 후마 출범 직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평균은 1,227개였다. 2014년 1,048개로 축소된 이후 2018년까지 점차 증가해 2018년에는 1,133개였다. 하지만 이번학기 영어 1, 2 과목이 대학영어로 대체됨에 따라 지난 1학기에 비해 38개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후마구조대가 문제를 제기한 2015년 시간강사 해촉에 대해서도 8학기 제한과 강의평가 반영 등 이유로 재위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2015년 있었던 해촉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모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혹해소 위해 양측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후마구조대와 후마 양측의 주장이 침에 하게 맞설에 따라 우리신문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혹해소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5일 오후 7시, 청운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사항에 관심 있는 모든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다.

‘매트랩’ 불법 다운로드 만연…“오래된 관행”

김재윤 기자 kiy0808@knu.ac.kr

【국제】 교내 공학 관련 수업에 사용되는 「MATLAB(매트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계공학·전자공학 등 다양한 학과의 전공 수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학교 측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트랩은 행렬을 이용해 수학과 공학 계산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주로 고성능의 수치 계산 및 결과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 수치 계산이 필요한 이공계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학생용으로 나온 매트랩 소프트웨어를 기본 옵션으로 구매할 때의 가격은 통상 6만 원 선이다. 이 때문에 부담을 느낀 다수의 수강생들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학교 학생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얻는 방향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매트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목은 「공학프로그램 입문」과 「신호와 시스템」 등이다. 해당 과목은 대부분 저학년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기초, 전공필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졸업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목이다. 현재 일부 학과에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환 중에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수업에서는 매번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박모(기계공학 2015) 씨는 이를 일종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받았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수업에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불법 경로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라고 직접 말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기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 A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소프트웨어를 구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교 친구에게 부탁해 소프트웨어를 얻어 사용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일부 과목 교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매트랩의 무료 틀 대체 움직임 역시 잘 전파되지 않거나 가르치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 매트랩의 이용 경험을 중요시하는 시각 등 다양한 이유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공학프로그램 입문 과목을 강의하는 이충업(기계공학) 교수는 “수업 때는 매트랩을 써왔지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실습을

원하거나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Octave(옥타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권장했다”며 “매트랩과 옥타브는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학부 수준에서는 옥타브를 사용해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 같은 수업을 수강중인 B학생은 “내 지도 교수님은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셔서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또 프로그램 틀이란 것이 아무리 비슷해도 약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분야인 만큼, 수업 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습실 개방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과대학 측은 “실습을 위해 강의실을 전면 개방할 경우,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업 시간외에는 강의실을 개방하기 어렵다”는 입장 밝혔다.

전자정보대학과 응용과학대학의 강의실 개방 시간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하지만 주말에는 개방되지 않고, 주간에 강의가 있는 시간이 잦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편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인 라이선스 구입을 진행해왔다.

아주대 정보시스템팀 이근 직원은 “매트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중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다”며 “학교 측에서 필요량이 많은 적은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문제에 대해 대학 본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정보처 이재영 직원은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사항은 정보처, 재정예산처, 단과대학이 심도있는 상의 후에 결정한다”며 “특정과목 쓰는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라이선스로 구매하는 것이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교수 또한 “학과에서 매트랩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기에는 학교의 비용 측면이 부담될 것이라 생각해 요청을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단기간의 해결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2019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시험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포기기간: 2019. 4. 2(화) ~ 4. 5(금)

■ 다전공 신청 안내

- 신청대상: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펼하고 재학 중인 자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신청만으로 이수신청을 승인함
 -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지원팀 안내문 참조
 -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등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은 호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 다전공 선발 인원(첨부 첨부 첨부 참조)
 - 1) 전년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 경영대학 신청보다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 2) 연간 선발 인원으로 1학기 선발 후 잔여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 4) 다전공 선발 기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 ※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세무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첨부 첨부 정원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 참조)
 -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국제통·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다전공 신청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2전공”란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제3전공”까지 선택 가능) → “저장” 클릭
 - ※ 학부편제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3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1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 2)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가능)
- 3)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다전공 포기 안내

- 대상: 이수 중인 다전공의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 포기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이수 중인 다전공 전공명을 선택 → 빙 칸을 선택 → “저장” 클릭
 - 2) 전공 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다전공 포기를 한 경우, 다시 다전공을 이수하려면 새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포기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2) 편제가 개편되어 다전공을 포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사지원팀(961-0053~4)로 문의 바람

■ 다전공 승인 및 포기 확인 기간: 2019. 4. 22(월) 예정

- 확인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2) 승인된 경우 “상태” 필드의 내용에 “Y”로 표기됨
- 유의사항: 다전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 다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 ※ 첨부: 다전공 선발 정원 및 다전공 이수 불가 전공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선택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제2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9. 4. 2(화) ~ 4. 5(금)

■ 신청대상

- 학부(과) 단위 입학생 중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 1) 해당학부: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정보학과 (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관광학부(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생활과학부
 - 2) 예외학부: 전공배정제와 전공 확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호텔관광대학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1전공” 란을 선택하여 소속 학부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 → “저장” 클릭
- 신청한 본전공(제1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
-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전공(제1전공)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
 - ※ 본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